

자기소개서 예상 질문 모음

(0) 자기소개

KDB 경험 # 데이터 프로젝트 # 지표 기반 사고
KOO 경시대회 # B사 컨설팅 # 소비재 / 핀테크 / 바이오

Q. 30초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K D B 경험으로 무장한 지원자입니다.
* 첫째, KOO 경시대회에서 30개의 다변수로 4,600개의 펀드를 진단, 선별하여 지표 기반 사고를 길었습니다.
* 둘째,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로 다루어보며 데이터 Literacy를 기른 경험이 있습니다.
* 셋째, B사 컨설팅 인턴 생활을 하며, 소비재 / 핀테크 / 바이오 기업의 실질적 기업 지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Q. 1분 Version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기업 금융 전문가를 꿈꾸며 KDB 경험으로 무장한 지원자 O변입니다.
첫째, KOO 경시대회에서 30개의 다변수로 4,600개의 펀드를 진단 / 선별하여 지표 기반 사고를 길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여러 산업 부문 및 부서에서 다양한 지표를 보고 있기에, 이러한 지표 기반 선별 경험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정형 /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어보며 데이터에 대한 Literacy를 기른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기업 금융 플랫폼 기관으로서, 내 / 외부의 기업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을 고심하는 만큼 이러한 Literacy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B사 컨설팅 인턴 생활을 하며, 소비재 / 핀테크 / 바이오 기업의 실질적 기업 지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리서치 및 분석을 해보았던 경험은, 산업은행 기업금융 부문 전반에서 활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KDB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금융을 실현하는 산업은행에 "한 걸음"을 보태겠습니다.

Q1. 소비재 / 핀테크 / 바이오 각각 기업 설명해달라

- 소비재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소비재 / 유통 물류 기업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었음.
기존 화장품 역량을 지렛대 삼아 세포 / PDRN / 단백질 시장에 진출하려는 소비재 그룹의 M&A Due Dilligence 프로젝트를 보좌했음
- 핀테크 : 한때 거래 정치 위기를 겪었던 핀테크 기업. 이에 따라 성장성과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있음
해당 핀테크 기업은 2가지를 성공 요인으로 보았는데
(1) 이용자들의 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적 니즈 파악 → CSS 고도화 / 소비자 LOCK-in
(2) 비금융 업계와의 합종연횡을 통한 데이터 고도화
- 바이오 : 3층 높이의 건물 중 1/3에 해당하는 곳에 설비 투자할 예정.
이에 따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잠재고객을 유지할 필요 있었음
약 800개의 글로벌 바이오텍 / 바이오팜을 조사하고 실제로 35건의 Tapping, 4건의 Partnership 논의가 이루어짐

Q2. 데이터 Literacy란 무엇인가?

- 데이터를 보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지 Background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재무 / 성과 지표 / 지도 데이터 등 다양한 정형 데이터 외에 뉴스 등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어보며 부가가치 창출한 경험 있음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디지털 Bank 도약을 지원하고 싶다.

(1)-(1) 자소서 활동 * 단, 학회 관련 내용은 (3) 금융권 역량 개발에 있음

활동명 Name	리스크 및 금융공학 학회	활동기간 Date	201909 ~201908
주요 활동내용 Main Activities	실무적 리스크 분석 및 행자를 위한 계량화 TOOL 및 파생 상품 학습, 파이낸스로 구현		
활동명 Name	가치투자 연합 동아리	활동기간 Date	201909 ~202008
주요 활동내용 Main Activities	재무 및 경영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합식, 상황식 기업 분석법 학습, 실제 가치투자 수행		
활동명 Name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활동기간 Date	202006 ~202102
주요 활동내용 Main Activities	데이터시각과 머신러닝, 딥러닝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술 활동,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실무적 리스크 분석 → 신용 / 운영 / 시장 Risk 등 Case을 나누어 이를 Python 등을 활용해 계량
리스크 헷지 # 계량화 TOOL # 파생 상품

재무 및 정성적 데이터
상황식 / 하향식 분석

데이터 시각
머신러닝
딥러닝

★ Q1. 당행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무엇인가?

(리스크 가이드북) 당행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부 등 섹터별 익스포저를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격적, 선별적 투자를 할 때 항상 담보 등 권리 관계에 유의하는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 / 클라우드 등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등 다양한 新 리스크 역시 산재해있습니다.

이처럼 심도 높은 리스크 관련해서도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Q2-1. 상황식 / 하향식 기업 분석의 예시를 말해줄 수 있는가?

먼저, 상황식 기업 분석은 기업 → 산업 순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하향식은 산업 → 기업 순으로 분석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상황식 기업 사례로서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 소부장 기업인 코리아씨키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 애플 등 다양한 글로벌 완제품 생산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에 완제품 업체들이 자체 생산을 잇다라 중단하며, 최근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의 Value chain, 그리고 소부장 기업의 역량 확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향식 기업 사례로서 의자 및 가구 업체인 시디즈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ovid 언택트 산업으로 가구 산업이 주목 받으며, 허쉬-허핀달 지수 / R&D 투자 집중도 차원에서 강점이 있는 시디즈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가구 상장기업의 R&D 집중도 평균은 0.82로 세계 100대 상장 기업의 평균 2.35에 훨씬 못미침
* 시디즈는 상위 그룹인 퍼시스 그룹과 공동 R&D를 하고 있으며, 300여개의 특허권을 보유. 따라서, 세계 Herman Miller 등과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

특히 해당 업체는 B2B에 이어 B2C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었고, 최근 의자 산업 부문에서 CAGR 50%의 고성장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한 Consensus, 리서치 보고서가 없는 점에 착안하여 아마존 가구 판매 순위 데이터를 보조 지표로 매출을 추정하여 Valuation을 진행했습니다.
* 매출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리뷰 별점 / 개수 / 가구 분야 매출 순위는 공개되어 있음
이를 시계열 데이터로 수집하여, 이미 정립된 github 모델로 B2C 채널의 매출액을 추정함

★ Q2-3.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서 텍스터를 보고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영화 특수 효과(VFX)에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특수 효과 부문은 Track Record, 즉 성공적인 제작 경험이 중요한데, "백두산" 등 주요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영화를 제작하고 글로벌 OTT와 협업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매출액 / 순이익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M 수익률로 약 270% 를 보이고 있습니다.)

Q3-1. 머신러닝 vs 딥러닝 정의,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머신러닝 - 회귀 / 분류 등 목적을 위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법이 존재함.
딥러닝 - 만약, NODE / 가중치 등을 갖고 인간 뉴런 신경망을 모사한 다중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때 이를 딥러닝이라고 부름
두 기법 모두 기존의 Logit 등 선형 방법론에 비해 데이터의 비선형 / 비정형 특징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LOAN 모니터링 실사 전 초기 정보 모델에 이러한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턴 경험(Internship)			
회사명 Company	KDB산업은행	군무부서 Department	기획조정부
담당업무 Detailed Responsibilities	국정감사 보조	직위 Job Title	청년인턴
재직기간 Employment Dates	202109 ~ 202112	재직여부 Employment State	재직
회사명 Company	BCG	군무부서 Department	Project Team
담당업무 Detailed Responsibilities	소비재 · 바이오 · 핀테크 프로젝트 지원	직위 Job Title	Research Analyst
재직기간 Employment Dates	202104 ~ 202107	재직여부 Employment State	퇴직

교육사항			
계열	구분	과목명 (직업교육명)	직무관련 주요내용
상경	전공선택	회계금융론	회계 금융이 실무 부문과 맺고 있는 유기적 관계 학습, 금융시장에 대한 미거시적 접근.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자료 제공, 한국인 스터디 개발지원관서 전문화사업			

상경	전공선택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 인력이 요구되는 금융경제로서 무역에 대한 금융 관련 분석.
상경	전공선택	산업조직론	시장 경쟁 양상에 따른 효율성 분석, 제도 및 규제의 바람직한 설계에 대해 고민.
상경	전공선택	계량이론과응용	경제 주체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TOOL 습득, 유인 설계와 위험 회피성향 소논문을 작성.
상경	전공선택	금융계량경제학	금융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SVAR, ARCH, GMM 등 이론 학습과 응용.
상경	전공선택	계량경제학2	계량경제1에서 놓쳤던 고급 계량 도구 학습, PS와 로지스틱을 활용한 펀드 운용사 분석.
상경	전공선택	베이즈통계	고급통계 이론을 R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 계층적 모형 분석을 위한 MCMC 등 습득.
상경	전공선택	거시경제학의 수량분석	소비, 구직 모형을 파이낸으로 구현하여 현실 설명력 높은 거시 동태 모형 학습.
상경	기타	한은금융강좌	36 + a 번 오프라인, 비대면 참석, 거시경제 흐름을 조망하는 시각을 기르고자함.
상경	기타	DB 경영체험 캠프	재무분석, 사업 PT와 경영 시뮬레이션 등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 의사결정과정을 체험.

(1)-(2) 기타 활동

1. 본인이 기술하고 싶은 기타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금융 논문 제안 공모전에서 "동남아 시장의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3국의 리스크를 계량화함으로써 동남아 시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보조하고자 했습니다.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위한 충격 정도를 결정하는 정성적 문제는 보다 깊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읽고 문화·제도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언어교환 어플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고, 조언을 얻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Q1. 태국 / 인도네시아 / 베트남 3국의 시장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보아라 / 왜 3국을 선택했는지?

IDX 종합지수(영어: IDX Composite, 인도네시아어: Indeks Harga Saham Gabungan)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21개(2021년 5월 1일 기준)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 주가 지수이다. SET 지수(영어: Stock Exchange of Thailand Index)는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43개(2020년 12월 17일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 주가 지수이다.

A.

- 베트남이 중국, 미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고 시장 진입이 활발
- 또한, 인도네시아 / 태국 역시 2010년대에 FDI가 급증한 시장
 - * 말레이시아는 무역수지 측면에서 적자여서, 시장 리스크를 파악하기 보다는 수입(import) 리스크를 관리해야한다는 배경 설명
- 세 시장 모두 자본시장 변동성이 국내 시장보다 훨씬 높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onditional VaR (Expected Short Fall) 등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Q2.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Process에 대해서 설명해보아라

- 데이터 접근이 쉬운 주가, 환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산가격의 급락 / 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점프확산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파이썬으로 구현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확률 기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Conditional VaR를 제시하여 진출 기업들의 필요 자본 buffer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Q2-1.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가

- 현재 교내 전공 수업을 수강하며, 모수에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 분석에는 엄밀성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일례로 IMF 보고서에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장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GDP 성장 기여도, 부동산 재고 소진 속도 등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 해당 동남아 시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데이터가 적어 유럽, 미국의 충격 사례를 참고했는데 더 엄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출품작에 명시했습니다.

Q3.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하였는가? (언어교환 어플에서 어떤 조언을 들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나?)

- 대부분 교환학생 어플리케이션으로 접한 친구들이어서, K-POP / 박항서 감독 등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 또한 SAMSUNG 등 대표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일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도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 베트남,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은 좋았으나 현지인과의 부정적 갈등 사례 역시 알고 있더라
- 따라서, 급격한 불매 등 시나리오보다는 포괄적 충격에 해당하는 시장 리스크에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Q4. 기업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지표가 아닌, 활동성 / 수익성 / 안정성 등 재무 지표를 패널 데이터로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 또한, 산업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Top-down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예컨데, 소비재 기업은 현금 흐름이 중요할 수 있고, R&D 위주의 바이오 기업은...

(2) 산업은행 지원동기와 이행 후 계획

# 선도적 정책금융기관, 공격 금융	# Stop Trading Future	# 실물, 금융 괴리 확대	# 한계기업
# 공격적 투자, 선별적 투자	# Next 플레이어 위한 장(場)	# 디지털 마인드로 해법을 제시한 경험	
# KDB Way	# 기업 금융 전문가	# 지표 및 데이터를 통한 사고	
# CMO 위탁 니즈 계량 지표	# 타 금융사 주최 경시대회, 30개의 다변수, 펀드 포트폴리오 선별		

2. 산업은행 지원동기와 이행 후 계획을 지원분야와 연결하여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금융 본연의 소명을 다하는 산업은행]

실물 경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적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떠난 미국 탐방에서 월가 시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Stop trading Future" 구호에서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레 공격 금융으로의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확대되어 양극화, 자본 축적 저해 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은 늘어 산업 재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Next 플레이어를 위한 장(場)을 마련하는 등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공격적 투자, 유망한 기업을 고르는 선별적 투자, 두 목표 간 균형을 위해 폭넓게 금융 현실을 조망하고 심도 있게 기업과 고민하는 경험은 산업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행 후 KDB Way로 무장한 기업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① KDB Way

산업은행 기획 조정부 인턴을 하며, 각 부서가 금융의 핵심 스펙트럼 내에서 KDB Way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디지털 마인드를 바탕으로 당면한 과제에 방향을 제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 사고, 외부와의 협력 등 실무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야 할 KDB Way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저의 KDB 강점을 발휘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산업은행의 핵심 인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② 기업 금융 전문가

저는 데이터 기반의 사고에 능한 기업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현실을 쫓고, 기업들에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선 지표 및 데이터를 통한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금융사 주최 경시대회에서 30개의 다변수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선별했던 경험, 컨설팅사에서 CMO 위탁 니즈 계량 지표를 제안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Q1. 금융 본연의 역할이란? + Stop trading Future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물 경제를 보조, 선도하는 역할. 산업은행은 사적 시장만으로는 달성성이 어려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이끌고 있음. 원래는 여러 모니터를 앞에 두고, 세계 경제 흐름을 읽으며 차익을 얻는 Trader가 장래 희망이었음 그러나, 미국 연수를 계기로 <금융이 가야하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이후 공격 가치와 Pin-set 형 실물 지원을 위해 분투하는 정책 금융, 그리고 산업은행에 관심을 갖고 이행의 꿈을 꾸었음

★ Q2. -1. 기획조정부 인턴을 하며 느낀점 / -2. 무엇을 했는지 / -3. 각 부서에서 KDB Way의 실천을 어떻게 목격했는지 / -4. 디지털 마인드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 -5.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한 일이 있는지?

/ -6.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 -7. 산업은행 인턴 하기 전이랑 후랑 본인이 직접 느끼는 산은의 좋은 점 혹은 개선해야할 점

-1. 첫째 (부서 관점), 부서 내외로 SMART한 협업이 이루어진다. 국정감사 대비 국회 요구 자료나, 현황 취합 자료 등을 만들 때 정말 매끄럽게 협업이 이루어지는 저력을 보았습니다.

둘째 (은행 관점), 산업은행의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합리적 가치와 논리가 녹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등 이슈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상충될 여지가 있는데, 강단 있고 무결한 논리로 정책 금융을 수행하는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셋째 (개인 관점)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목표 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금융 거시 지표 취합, 국정감사 녹취록 작성 등 할당된 일에 자동화 기법을 더해, 효율성 개선과 저의 역량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2. 데일리 업무로는 금융 거시 지표 취합, 산업은행 관련 기사 스크랩 + 국회 동향 정리를 하였으며,

KDB Way

KDB Way란 비전 달성을 위해 공유해야 할 후 임직원의 행동규범을 의미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녹취록 작성 및 1차 정제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또한, 국회 방문(요구 자료 제출, 방문 설명) 시 수행 + 의원실 방문 달력 나누어주기 등 산업은행의 공적 성격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음
현재는 정부위 유럽 순방 수행 지원 관련 6개국 Fintech 시장 조사 + 예결 소위 대비 정부위 모니터링

-3. 넥스트라운드실의 경우 IR로부터 현장 중심적 사고를, 기획 조정부에서 부서 간 협력을, R대리로부터 디지털 마인드를, 리스크 관리부의 선제적 기후 리스크 관리로부터 미래 지향적 업무를, 여신기획부의 데이터 담보 대출로부터 계산된 도전을 보았습니다.

-4. 전 기획조정부 인턴들의 후기를 보며 국정감사 당시 녹취록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Google Cloud API, 파이썬, 클로바 노트 등 다양한 TOOL로 부터 실시간 speech to text를 구현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고민의 결과를 매뉴얼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되던 회의록 Full-Text를 더 정확도 높고, 소요가 덜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인턴 행원은 6시 퇴근, 더 남아 있어서는 팀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자동 녹취록이 없는 경우 사수 멘토님께서 국정감사 녹취록 보고에 더 시간과 노력을 쏟으셔야했음.
사수 멘토님의 Workflow line을 공유받아 주말 새벽에 녹취록 정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해당 시간 전에 자동 녹취록을 구성하여 송부 드림.
* 즉, 팀내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마땅히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처음 기획 조정부 부서 배치를 희망했을 때, 다양한 부서로부터 오는 양질의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그러나, 정보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자료 취합이나, 산출물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대신, 뉴스 스크랩과 쏘 부서에 공개되는 발간물을 통해 학습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맥을 잡고자 함.

Q3-1.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현실과 데이터의 필요성,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 마이데이터 사업이 점목되면 현재 20% ~ 60% 수준을 보이는 업종별 빅데이터 점유율이 훨씬 상승할 여지가 있음
또한, 업종 빅블러 현상이 심화되며 전통적 의미의 사업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산업은행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데이터 담보 대출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여신 모델을 구축하였음.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새롭게 판별할 수 있는 지표의 등장이 이루어질 것.

★ Q3-2. 데이터 기반의 기업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도 산업은행은 재무 정보, 대표자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초기 경보 모형과 여신 결정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동시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업 내 · 외부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를 구현 중임
이처럼,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능숙하게 다루며, 어느 부서에 있든 데이터 핸들링에 능한 사람이 되고 싶음
특히, 현재 외감 / 비외감, 제조 / 비제조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산업은행의 모형은 점차 빅블러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사각 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음. Ex) 스타벅스 BANK 사례 / 빅데이터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물류, 의료 등 서비스의 양상 변화
저는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비율 / 감사보고서 주석사항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업 금융을 보조하고 싶음.
* 가은 曰 : 두괄식으로 말하면 좋을 듯

Q4. 타 금융사 주최 경시대회에서 활용했던 30개의 지표와 간단한 출품작 설명을 해달라

- 해당 경시대회는 라임 사태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된 공모펀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펀드가 개인 직접 투자 이상으로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
이에 따라 펀드 성과에 예측력이 있는 액티브니스, 과거 성과지표, Famma-French Factor Model 등 지표를 선정하여 펀드를 군집화 + 선별함
4600개의 펀드에 대해 3개월마다 Re-balancing을 진행하여 3년 누적 수익률 기준 60%의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음

Q5. 경시대회에 참여한 해당 금융사 등에 로열티가 있을 것 같은데 Why 산업은행?

- 산업은행은 기업과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며, 실질적 기업 지원의 답을 찾는 기관.
컨설팅 업체는 기업 현안 문제에 대한 고민 경험을 하고자 한 것이며, 어려서 부터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싶었음
거래소나 BCG는 (1) 공적 영역에서 사적 금융 보완 (2) 금융 본연의 기능을 direct로 실현하는 산업은행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 생각

Q6. "디지털 마인드"란 무엇인가? 어떻게 당면한 과제에 답을 제시한 것인지?

- 디지털 마인드란 상호 연결에 능(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아날로그식 자료나 활동들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크고 생산성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Resource를 낭비
저는 다양한 TOOL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던 녹취록 / 금융 거시 지표 보고 등을 자동화하여 프로세스를 개선
인턴으로서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다룰 수 없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팀원분들이 보다 핵심적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였다 생각

Q7. 컨설팅사에서 CMO 위탁 니즈 계량 지표를 어떻게 고안했다는 것인지?

- RA로 근무할 당시 컨설팅 그룹에 대해 수 많은 바이오 사가 신사업 등 방향을 묻기 위해 의뢰를 했음
그 중 하나였던, 고객사의 경우는 바이오 CMO 사로서, 글로벌 바이오텍 & 바이오 Pharma를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었음
Evaluate Pharma 등 수많은 데이터셋으로부터 취합한 글로벌 바이오사의 위탁 니즈를 계량하기 위한 지표로 당시 "세포 치료제 공장 사용 여부", "파이프라인 보유 개수" 등이 활용되고 있었음
RA로서 해당 지표의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함이 아시아 시장 진출 동기를 대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GMP 공장 인증 여부", "임 / 당노 / 관절염 3개 파이프라인에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를 제안하여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할 수 있었음



Q8. 컨설팅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금융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은 것인지? (주로 컨설팅?) / Why 기업금융?

- 컨설팅사에서 핀테크 / 바이오 / 소비자 기업에 대해 고민해보았던 경험은 기업 금융 부문에서 더 빠르게 적응하는 밑거름이 될 것 또한 당시 서로 다른 분위기의 3개의 Project Team 에서 근무하며 소통과 협업을 하였는데, 이는 조직에 더욱 빠르게 융화되는 선행 경험이 될 것 세 프로젝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피드백은 제약 조건 하에서 방법을 찾는데 능하다는 것이었음 단순히 "안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 방향을 찾으며 산업은행의 과업에 "한 걸음"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음
- 처음엔 역사적 데이터가 많지 않은 신성장 혁신 부문에서 활약함을 최종 커리어 목표로 생각하였음 기획 조정부에서 다수의 행원님들께선, 어디의 부서에 있든 산업은행 최전선인 기업금융에 대한 지식이 탄탄해야함을 강조해주심 기업 금융에 대해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다양한 TOOL 을 접목하는 역량 등 강점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겠음

Q9. 기업들에 선도적으로 방향 제시, 왜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사고가 필수?

- 산업은행은 단순히 과거 지표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님 시장 성장성 등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유망한 기업과 산업을 발굴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 또한, 변화하는 금융 환경 하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적기의 방향 제시 or 리스크 대응에 소홀할 수 있음

Q10. 영업 업무 경험이 있는가?

- 편의점 아르바이트 7개월 경험 + 전단지 아르바이트 1개월한 경험이 있습니다 Routine과 Check-list, 그리고 물입과 정성의 자세로 남다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매장관리,接客, 그리고 손님 유치를 위한 전단지 아르바이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마케팅 / 영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Q11.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산업 재편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 기업 입장에서선 출구전략을 아는 것, 산업 입장에서선 보다 더 높은 생산성 / 안정성이 있도록 재배치되는 것 집계 방식에 따라 구체적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약 34% 의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발표 또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은 전방위적 기후 리스크, GVC 충격 등에 노출되어 있음 보다, 리스크에 강건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 정립이 필요조건일 것

(3) 금융권 역량 개발

- # 공모전 / 학회 / 인턴 # 리스크 및 금융공학 / 기업분석 및 가치투자 /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학회
- # 3차례의 논문 공모전 # 책 속의 지식을 현안 문제에 적용 # 컨설팅 그룹의 핀테크 프로젝트 인턴
- # 어떻게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Rule Setter가 될 수 있을지 # 실무진들이 느끼는 고민과 해결 방안
- # 해외 선도 기업과의 인터뷰 보조 / 영어 소통 능력 보강 # 데이터셋을 다루는 엑셀 반자동화 기법

3. 금융권 역량개발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업무경력, 교육사항, 단체활동,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기술)

금융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공모전 / 학회 / 인턴 경험을 쌓았습니다. 3차례의 논문 공모전을 통해 책 속의 지식을 현안 문제에 적용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리스크 및 금융공학 / 기업분석 및 가치투자 /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학회 등 3차례 학회 활동도 금융 현안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컨설팅 그룹의 핀테크 프로젝트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사스터디에서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Rule setter가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술 확보를 통한 초격차 유지 /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 등 피상적인 대안만을 내놓음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길로 유수의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실무진들이 느끼는 고민과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선도 기업과의 인터뷰를 보조하기 위해 영어 소통 능력을 보강하고, 데이터셋을 다루는 엑셀 반자동화 기법을 익히는 등 금융 실무를 위한 소양도 ~~가~~ 갖추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self-motivation과 몰입의 경험들은 전문 금융인이 됨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Q1. 공모전이 어떻게 현안 문제로 연결되었는가?

- A : 참여 했던 금융사 공모전은 현업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현안을 예시 주제로 내건 공모전이었음 예컨데, 보험사 인출 사태 (즉, 인수어런스 런)을 적기에 포착, 혹은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 등 주제를 다루었음 특히,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부문에 안정적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자 했던 논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음 이처럼, 먼저 현안을 고민해보았던 경험을 살려, 산업은행에서 활약하겠습니다

Q2. 금융공학이란?

A : 금융 문제에 수학, 통계 이론 등을 접목하여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
입자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자산 가격 움직임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간학문적 통합이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적정 자산 가격 뿐만 아니라 가격 충격을 계량하여, 리스크 관리까지 이어짐
考 : Merton 모형 / 가하브라운 모션 / 블랙-숄즈 / 확률적 변동 이론 / 점프 확산 모형

Q3-1. 리스크 및 금융공학 학회에서 배운 것을 설명해보아라

A : 가장 인상 깊었으며 전산부장으로서 학회원들에게 세션 발표를 진행한 부분은 "VAR 과 GBM 개선"이었음
VAR은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금액을 Buffer로 책정하는 기법
이를 위해 다양한 자산 가격 모사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GBM 및 개선 모형들은 높은 설명력을 보여 현재 활발하게 연구 중

Q3-2. 가치 투자 학회에서 배운 것을 설명해보아라 / 어떤 기업을 분석하였는가?

- 공부 후 보강 예정 -

Q3-3. DSL 학회에서 무엇을 배웠나?

A : 데이터 수집 / 전처리 / 시각화 등 EDA / 모델링 및 가설 검증 등 데이터 처리 활동의 A-Z 를 배움
' 또한, 3차례의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의 데이터를 다루어보는 경험

Q3-4. 어느 학회가 가장 도움 되었나?

A : 리스크 및 금융공학 학회가 1학년 때 처음 했던 학회로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
이유는 1학년으로서 처음 고학년 과목 내용과 실무 지식을 접하며 학회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
특히, 동남아 시장 리스크 분석 관련 논문 경시대회에 참여하며 어떠한 점이 부족하지 더욱 알 수 있었고 이후, 통계 지식 보강, 데이터 TOOL 공부 경주 등으로 이어짐

Q4. 실무자들이 느낀 고민과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A : 당시 클라이언트 사는 한때 거래정지를 겪었을 만큼 투자자의 불신을 받고 있던 상황
경영진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 확신과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당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 당사가 갖는 차별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시간이 많았음
특히, 금융-비금융 Partnership과 자본 참여를 통해 업종 간 데이터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차별화 이루었다는 평가

★ Q5-1. 핀테크 시장에서 Rule setter가 되기 위한 방법을 현재의 관점에서 대안 제시 한다면?

첫째, 소비자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차별화하여야한다.
핀테크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가 등장하면 물밑 듯 이동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Lock-in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수익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비금융 간 유기적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차별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현재 NICE, KIS 채권평가 등 모든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CSS 모형 등에 있어 차별화를 이룩하기 어려움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는 카드사 및 통신사와 협업 구조를 이룩하였으며 유기적 데이터 흐름을 얻으려함.

이를 고려했을 때, 산업은행이 "더 나은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테스터 베드 혹은 AC, VC를 연계하고
IR의 장(場)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사업자 간 유기적 협력(파트너십)을 유도할 수 있다면
핀테크 시장 부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Q5-2. 어떻게 핀테크 시장의 부흥 방안을 산업은행 차원에 접목할 수 있는가? (서경원 선배님 Contact 참고)

소비자 니즈의 선제적 파악 / 금융-비금융 합종연횡 및 데이터 고도화는 B2C 채널의 핀테크 전략
산업은행은 B2B 기업금융이 주(主)이므로, 앞선 Know-how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다만, 기업금융에 있어 시장 Player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 (약 60년 간 축적된)를 갖고 있고 역사적 서류 데이터를 DT할 수 있을 것
또한, 토스와의 협업을 하였듯 여타 빅테크 기업과 AI / 딥러닝 모형 개발 등 기술적 측면에서 협업할 수 있을 것

Q5-2. 핀테크 시장의 Rule setter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핀테크 시장에서 하나의 선도 기업이 등장할 경우 여러 글로벌 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한다고 읽었다
한국이 비금융-금융 빅블러 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했으면 하는 생각에 토의 발제를 준비하였다

Q6. 영어 소통 능력을 어떻게 보강하였는가?

해외 선도 기업 인터뷰는 주로, 유럽권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따라서, 컨설턴트분들 역시 발음에 익숙치 않아 청취에 어려움을 겪었음
저는 허락 후 녹음 파일을 받아 반복 청취하였고, 동결 건조 등 전문 용어를 암기하여 인터뷰를 보조하고자 했음
이를 통해, 컨설턴트가 내용을 조금 놓치더라도, 옆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인터뷰에 힘을 실을 수 있었음
* 말하기 실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 편의점 알바 당시 새벽 시간을 활용해 어학 공부를 하였으나, 실제 이야기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잘 튀이지 않더라
산업은행은 직원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전화 영어 등 제휴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

Q7-1. 엑셀 반자동화 기법은 어떻게 익혔는지?

VBA로 함수를 만들고, Vlookup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1:多 데이터 매칭 리스트를 체계화 구축했다
기존에는 바이오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수"가 주된 관심 사항이었으나, 제가 제안했던 파이프라인의 임상중 데이터는 1:多的 관계를 갖고 있었음
여컨데, 회사 하나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파이프라인 하나가 여러 개의 임상중을 타겟팅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1:多:多 리스트를 Vlookup이 아닌 Match 및 Rows 함수 등을 활용하여 구현했고, 일부는 VBA 매크로 함수를 통해 간결화함.
* VBA 매크로 함수의 경우, 다변수에 의한 기업 Categorization에 있어 복잡한 Flow chart를 함수로 구현해야했음
여컨데, 해당 기업의 위치에 의해 한번 갈래가 나누어지고 cGMP 인증 여부, 공장 Capacity 에 의해 나누어지고, 이러한 갈래가 10개 이상 있었음
이를 IF, Ifelse 등으로 구현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고, 함수 역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워 VBA로 함수를 간결화함.

Q7-2. 본인의 VBA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제 VBA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문법 등에 대해 학회에서부터 학습하며 기본적인 Literacy는 갖추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리서치 및 함수 구현을 시도함에 두려움이 없으며 실제로 템플릿 자동화 등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저는 알고 있는 지식을 지렛대 삼아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Q8. 왜 자격증을 하나도 따지 않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역시 본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음
그러나, 경시대회 / 학회 등은 대학생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자격증은 현업 /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연계하며 학습하고 싶었다.
제가 배치된 부서에 따라, 신용 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통한 자기계발을 경주하겠다

(4) 데이터 역량

# 3V : Variety / Velocity / Volume	# 논문 공모전 /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 보험사 경영효율지표 / 파산 시뮬레이션 / 경기 충격에 따른 보험 환매 / IFRS로 인한 부채 인식 증가
# 뉴스 크롤링 / 공모주 과대평가 예측 프로젝트	# 벡터화 / 병렬 처리 / 중급 데이터 처리	# 구글 스택다점 / 클라우드 서비스
# 엑셀로 처리할 수 없는 수백만 행의 데이터	# 수십 개의 데이터셋	# 4600개의 공모펀드 /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 하방 리스크 헷지, 연 20%의 시장 초과 수익률		

4. 디지털 분야의 역량 확보를 위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고, 본인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서술하십시오. (업무경력, 교육사항, 단체활동,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기술)

3V 속성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Variety]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활동과 논문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25년간 매월 발표된 보험사 경영효율 지표로 파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정형 데이터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경기 충격에 따른 보험 환매, IFRS17에 따른 부채 인식 증가 등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논문 출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 크롤링을 통한 공모주 과대평가 예측 프로젝트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Velocity]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벡터화, 병렬 처리 등 개념을 익히고자 했습니다. 교내 수업에서 경제학 모델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며 중급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 스택다점에 참여해 금융업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중입니다.

[Volume]

엑셀로 처리할 수 없는 수백만 행의 데이터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타 금융사 주회 공모전에서 [딥러닝 군집화를 활용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FN가이드, 제로인으로부터 수집한 수십 개의 데이터셋을 병합하여 최종 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600개의 공모펀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하방 리스크 헷지와 연 20%의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Q1. 보험사 경영효율지표란? 가장 인상 깊었던 효율지표를 이야기해보아라.

보험해약 효력상실율, 운용자산 수익률 등이 변수 중요도, Feature importance가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파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했다

Q2. 파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파산확률이 50%를 넘으면, 이를 파산으로 분류 (이처럼 Threshold 를 활용하는 기법은 Logit 등 전통적 기법에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부 변수에 대해 시나리오 설정

ex) 부채 00% 증가 / 운용자산 수익률 sim 점프확산 모형 → Lower bound / GA 채널 불완전 판매 ↓, 경기 충격으로 인한 인슈어런스 RUN

Q3-1. IFRS 17이 어떻게 부채 인식을 증가 시켰는가? 이게 어떻게 파산 확률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파산 확률에 있어서 주목했던 지표로는 보험 해약 효력 상실을, 그리고 운용자산수익률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던 20년대 초중반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팽배했으며, 이는 역마진을 통한 수익을 얻는 보험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 중심으로 부채 인식을 증가시킬 IFRS 17은 보험사의 자본 총당 부담을 늘려 곧 수익률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불었었습니다.
이와 함께 GA 채널에 따른 불완전 판매 증가, Coivd-19로 인한 인슈어런스 런 등 사례를 들어 IFRS 17과 함께 시나리오에 활용했습니다.

Q3-2. 해당 보험사 파산 확률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경영효율지표라는 15 - 20개 남짓의 지표가 보험사의 운영 성과를 예측 / 평가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파산 : 비파산 회사 비율이 2:8로 비대칭적이었으며, 파산 사례로 보는 케이스도 보험사 정착기인 2000년대 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학습된 모델이 현 상속기 보험사의 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했으며 이는 더욱 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뉴스 크롤링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뉴스 크롤링은 Beautiful Soap 등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금융 사이트를 활용했다.
이 이유는 다음 금융의 경우 네이버와 다르게, 언론사의 뉴스를 그대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 전처리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 2-3년 간의 공모주 데이터에 대해 수집했으며, 총 수십만 행 (Record)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

Q5-1. 공모주 과대평가 예측 프로젝트의 모델링 방식, 가설 등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공모액 및 수요 예측 경쟁률 등 정형 데이터 외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LDA 라는 방법론을 활용했다.
해당 방법론은 어떤 단어가 주었했을 때 특정 Topic 에 속할 확률을 구해주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예컨대 뉴스에 있는 "매출", "상장" 등 단어를 유사한 단어끼리 Topic으로 묶었고, 해당 Topic이 긍정 / 부정 정보를 담고 있는지 보려했다.
몇 개의 Topic 그리고, 긍정 / 부정 정보인지의 판별 등은 사람이 정해주어야 하는 모수인데, 이 부분에도 나름의 그럴듯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Ex) 몇 개의 Topic 관련해서는, Topic 개수에 따라 점수를 구해주는 PS Score 등이 있다. 해당 Score가 "인덱"을 보이는 경우에서 끊는 시각적 방법을 사용했다.
긍정 / 부정 의미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가 자주 들어간 종목 기사가 결국 사후적으로 상승 / 하락 했는지의 여부를 차후에 라벨링하여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Q5-2.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출처 / 방식 / 데이터 양)

재무 데이터, 비재무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dart 보고서 및 다음 금융을 참고했다
총 2년 ~ 3년치의 기업 데이터 (150개 기업)에 대해 수 십만의 Record 뉴스 데이터, 그리고 dart를 통한 재무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존의 수익률, 밴드가, 공모액, 수요 예측경쟁률 등 정형 데이터로 추정했던 AI Model보다, 약 15% 정도 더 높은 자연어 처리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든 널리 시초가가 설정되기까지 많은 변수들과 보인들이 존재하는데, 수치와 하여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코스트다 지수 수익률, 밴드가, 밴드 상/하단 가격, 공모액, 수요 예측경쟁률, 유통가능 주식, 상장 시기, 공모가, 밴드수익률, 공모시장 동향을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Q6. 벡터화 / 병렬 처리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코딩 과정에서 반복문 내 반복문이 쓰이는 등의 경우 알고리즘 상 n^n 제곱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벡터 기반 연산을 지향해야 하고 1:1 매칭이 아닌 多:多 매칭으로 연산을 함이 중요함을 배웠다.
그러나, 꼭 1:1 매칭이 일어나야 하는 sequential 모델의 경우 병렬 처리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부분적으로 C-언어 compile을 하는 기법 등에 대해서 배웠다.

Q7. 교내에서 어떻게 경제학 모델을 파이썬으로 구현했는가?

교내에서 배울 수 있는 구인 / 구직 모형, 그리고 동태적 소비 모형 등에 있어서 parameter를 바꾸어 가며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다.
특히 강화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벨만 Equation, 즉 모든 기에서 현재 상태를 고려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기법이 사용되어 이를 맞볼 수 있었다.

Q8. 스스로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중급" 이라고 생각하는가?

학회 및 공모전 프로젝트 당시 이공계 학생 분과 협업하며, 데이터 처리는 도맡아 한 적이 많다
제 실력이 뛰어나서 라기 보다는, 데이터 관점에서 R / 파이썬을 함께 다룰 수 있으며 관련 경험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데이터 처리 실력이 "중급" 이기 위해선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모듈을 직접 커스터마이징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다.
현재는 헨다 리스크 관련 조별 과제를 하며, 중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Q9. 구글 스타디잼이란? 가장 최근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가?

구글 스타디잼은, 구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약 8주 간의 체계 / 실습형 강의를 일컫는다
링크를 통해 구글 측과 접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모든 Course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가상머신 / API 활용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
국회 자동화 녹취록을 고민하는 일거름이 될 수 있었다.

Q10. 산업은행의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을 알고 있는가? 도입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가?

현재 산업은행은 개인 / 부서별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개념의 클라우드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R대리 등을 활용한 DT 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프로세스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는 직접 설계하기 어려운 작업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컨데, 번역이나 자연어 처리 등은 상당히 큰 자원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의하여 SaaS / PaaS 처럼 도입할 수 있을 것
(SaaS : 서비스 완성형, PaaS : 개발 Tool)
* 피자 배달, 피자 재료 및 도구들

Q11-1. 지표 기반 사고를 어떻게 산업은행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가?

산업은행에서는 부서별 보아야하는 지표가 있고, 앞으로 도입될 지표가 있을 것
예컨데, 플랫폼 기업 등을 심사할 때는 MAU 등 지표가 중요할 수 있고,
여신 심사 시에는 기업의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등 재무 지표 뿐만 아니라 대표자 신용까지도 보아야할 수 있을 것
이처럼 상황에 맞는 지표, 그 외에도 주석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시각을 갖고 싶다

★
(보완)

Q11-2. 딥러닝 군집화란? 사용했던 주된 모델링 방법은 무엇인가?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첫 번째는 좋은 펀드 군집을 선별하는 것, 두 번째는 군집 내 펀드 투자 비중을 정함이다.
첫째로, 본 논문은 30개의 다변수를 활용하였기에, "좋은 펀드"라는 정보를 잘 요약 / 축소하는 군집 기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SOM (자기 조직화 지도) 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신경망을 활용하여 군집 간 거리는 최소화하고, 군집 내 표본 거리는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군집 내 투자 비중을 전역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GA (유전자 알고리즘)를 활용했다.
이때 최적화 목적 함수로 샵프 비율 뿐만 아닌, 자산의 공동 움직임 / 하방 위험을 잘 표상하는 CLPM을 설정하여 효과를 보고자 했다.
* GA는 최적화 과정에 돌연변이를 끼워넣음으로써 국소 최적화를 피하는 기법이다.

Q11-3. 리스크 헷지 및 연 20% 시장 초과 수익률, 실제로 가능한가? 생존자 편향 등 문제 없었나?

해당 논문의 포트폴리오는 과거 샵프비율 상위 30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스피 수익률을 모두 상회했다.
생존자 편향 문제, 수수료 문제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표본의 분포를 바탕으로 1차 Basket screening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운용된 펀드의 경우, 대부분 시장에 잘 정착하여 잘 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1차 선별했다.
또한, C / S 등급의 펀드의 경우 3개월 리밸런싱 과정에서 수수료 이점을 볼 수 있기에 펀드 표본을 해당 등급을 위주로 통합했다.

Q11-4. 공모펀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었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지표는 무엇인가?

성과 지표 / 추적 오차 등 과거 지향적 지표 외에 액티브니스 등 미래 지향적 지표를 넣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모든 다변수 조합을 Case by case로 비교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래 지향 지표의 예측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티브니스란, 해당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얼마나 펀드가 Active 하게 운용되는지, 시장 포트폴리오와 얼마나 차별화되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를 직접 계산하여, 군집화 및 펀드 선별에 활용하고자 했다.
* 단, 운용 전략 및 자칭 상 해당 펀드 포트폴리오의 상위 10개 비중 종목만 공개하였기에, 제한은 있었다.
* 이를 보완하고자 종목 액티브니스가 아닌, 산업별 투자 비중까지 보조 지표로 활용했다.

Q11-5. 수십 개의 데이터셋, 어떤 데이터셋이 있었나?

펀드 성과 지표 / 위험 지표 / 펀드별 투자 종목 및 비중 / 시장 포트폴리오 비중 등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통해 수집한 지표가 있었다.
조화할 수 있는 펀드 개수에 제한이 있었으며, 지표 역시 Category별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펀드별 투자 종목 비중은 펀드 - 투자 종목 간 1:多 관계가 성립하여, 이를 활용한 Activeness (즉,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하는지) 산출도 시간이 걸렸다.

Q11-6. 자의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사람이 직접 결정해주어야하는, 군집 지도 크기 / 군집 개수 등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동화하여 임의적인 부분을 줄이고자 했다.
지도 크기의 경우 논문 대부분의 Root(N)을 따르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Rule of Thumb로 지정했다.
군집 개수에 있어서는 Watershed 라는 이미지 처리 기법을 통해, 자동화를 이룩하였다.

Q12. 간접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간접투자 부문이 아닌 기업금융을 희망하는가?

간접투자 부문도 물론 매력적이라 생각한다. 후에는 VC, 혹은 간접투자 금융에서도 활약하고 싶다.
그러나 제가, KDB Way 중 RM에 해당하는 "외접 협력"에 약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핵심 기능을 기업 금융 부문에서 먼저 배우고 싶다.

(5) 가치관

# 열정을 다해 신뢰를 지키자	# 많은 일의 핵심과 본질	# 장애 학생 대필 도우미
# 영어 전공 수업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 스크립트 전문, 내용 구조화, PPT - 강의 설명 Matching
# 학우와 소통 과정	# 열정, 약속을 다하는 신뢰	

5.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열정을 다해 신뢰를 지키자”입니다. 많은 일의 핵심과 본질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합니다. 고학년으로서 교내 장애 학우 대필 도우미를 신청했을 때, 교내 센터는 이례적인 고학년 참여에 걱정을 표했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는 영어 전공 수업이었기에 도움을 받는 학우 역시 센터 편으로 캘리티 낮은 대필 자료를 받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보다 항상 더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강의 속 교수님과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아 학습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우미 학생분들이 제공해주던 강의 내용 요약에서 더 나아가, 스크립트 전문 + 내용 구조화 + PPT와 강의 설명 간 매칭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틈틈이 학우와 소통 과정을 거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열정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Q1. 인턴 업무 간 가치관 발취한 사례?

국회 자동 녹취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자동 녹취록을 현재는 컴퓨터 1대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으나, 초기엔 1대에 1개의 프로그램만을 돌릴 수 있었음 따라서, 의원 질의별 녹취록을 만들 때 팀원 간 호출이 맞지 않는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등 변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친구의 컴퓨터를 빌려 Back-up 으로 활용했으며, 실제 변수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Contingency Plan을 마련했던 경험이 가치관을 발취한 사례다.

Q2. 산업은행의 사회 공헌 알고 있는바 있는지?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SME 발굴 등은 모두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측면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외에도 무료 급식소에 꾸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변 이웃들로부터 존경 받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3. 해당 가치관의 위협받은 사례?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는가)

바이오 CMO 지원 프로젝트 당시, 데이터셋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다 잘못 상부에 보고된 적이 있다.

Bluebird bio 라는 기업은 유전자 치료제만 만들고 있었는데, 데이터셋에는 세포치료제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해당 기업을 추가 리서치할 때, 보다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하는데 데이터셋을 맹신한 나머지 잘못된 보고를 드렸다.

이처럼, 이미 주어진 데이터라 할지라도 double-check할 기회가 있다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Q4. 장애 학생 대필 도우미는 왜 하게 되었는지? (계기)

1학년때부터, 교육 봉사 / 어르신 급식 봉사 등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기 위해 봉사 활동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급식 봉사가 제한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주변에서, 봉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한 1학년 때부터 꼭 해보자고 느꼈던 대필 도우미 활동에 지원하게되었다.

Q5. 가이드라인 외 무엇을 했는지? 이는 어떻게 업무에 접목될 수 있을지?

원래 가이드라인은, 대필 전문을 전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해줄 경우, 사례가 풍부했던 경제 전공 수업에 대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조화하고 PPT 와 전문 간 매칭을 한 정리 파일을 만들어 추가로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가이드라인 이상의 quality를 행하려는 태도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실제로, 기획조정부 인턴 생활을 하며 약 15개에 대한 금융 지표 일일 보고의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인턴 분들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 산업은행 차원에서 중요한 산금채 / 그리고 HIS 항생 지수 등을 추가하여 총 지표 수를 20개로 늘렸으며

트렌드를 보기 위해 일일 단위로 그래프를 갱신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상기 과정을 파이썬으로 자동화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남은 시간은 연한 Infomax 등의 주요 채권 시장 이슈를 그래프에 추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Q6. 학우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FACT Check)

우선 항상 필기 정리 파일을 줄 때마다, 피드백에 열려 있다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 혹은 절판된 교과서 등을 잘 구했는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우가 절판된 교과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포착하여, 이를 택배로 배송해주는 등 선제적으로

도움 받는 학우의 만족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7. 대필 도우미 간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해당 과목은 3, 4학년 대상 전공 강의였는데, 영어로 진행되어 도우미 자원자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해당 강의 내용의 Full-text 전문을 영어로 필기할 때 시간 소요가 생각보다 커 어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구조화 등 정리 File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전문 Text File을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어 도움 받는 학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Q8. 해당 가치관은 어떻게 성립하게 되었는지

항상 열정과 신뢰를 갖고 삶을 영위할 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학년 때 학회에서 전산 부장 역할을 수행하며,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세션을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1학년으로서 고학년 위주의 학회원들에게 폐를 끼쳐선 안된다는 생각 하 열정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회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개선된 커리큘럼은 외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리크루팅 경쟁률이 2배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열정과 신뢰는 당장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삶을 보람차게 사는 원동력입니다.

(6) 프로세스 개선

바이오 CMO사 진출 프로젝트 # VBA 함수 # 로컬 파일로 템플릿 저장
기업-보유 파이프라인-타겟질병 # Outlook 메일의 한계

6. 기존의 프레업(일하는 방식 및 주어진 여건 등)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바이오 CMO사의 신사업 진출 프로젝트에서 2가지 비효율을 포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우선순위 기업 목록화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였던 고객사 발굴을 위해선 CMO 위탁 니즈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 기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1 매칭이 되지 않았던 [기업-보유 파이프라인-타겟질병] 주출 작업은 Vlookup 등 기본 함수로는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VBA 함수를 고안했고, 수작업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 기입이나 시간 과다 소요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이메일 템플릿

컨설팅사의 보안 문제와 Outlook 메일의 한계로 자주 쓰는 이메일 양식도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회하고자 출근 전 여러 소스를 공부했고, 로컬 파일로 템플릿을 저장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알아냈습니다.

상기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팀에 건의했고, 이는 다른 팀에게까지 공유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Q1. 소비자 / 핀테크 / 바이오 각각 기업 설명해라

- 소비자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소비자 / 유통 물류 기업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었음.

기존 화장품 역량을 지렛대 삼아 세모 / PDRN / 단백질 시장에 진출하려는 소비자 그룹의 M&A Due Dilligence 프로젝트를 보좌했음

- 핀테크 : 한때 거래 정치 위기를 겪었던 핀테크 기업. 이에 따라 성장성과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있음

해당 핀테크 기업은 2가지를 성공 요인으로 보았는데

(1) 이용자들의 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적 니즈 파악 → CSS 고도화 / 소비자 LOCK-in

(2) 비금융 업계와의 합종연횡을 통한 데이터 고도화

- 바이오 : 3층 높이의 건물 중 1/3에 해당하는 곳에 설비 투자할 예정.

이에 따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잠재고객을 유치할 필요 있었음

약 800개의 글로벌 바이오텍 / 바이오팜을 조사하고 실제로 35건의 Tapping, 4건의 Partnership 논의가 이루어짐

Q1. 로컬 템플릿 저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해당 방안을 어떻게 고안했는가?

글로벌 컨설팅 Compliance 팀에서 규제함은 E-MAIL을 반드시 Outlook을 쓰라는 것이었으며, VBA는 Outlook 내부 기능이었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Outlook 만 써야하는 제약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없는 제약이었기에,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과 학회 등에서 배웠던 VBA 이벤트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자료 발송용 / 보고용 템플릿 등을 만들었고 이를 매뉴얼화하였다.

Q2. 바이오 CMO 사에서 무엇을 했는가?

(프로젝트 갈등 경험 / 1분 자기소개 중 바이오 업체 설명 중독)

(7) 난관

아버지의 사업 실패 # "소유냐 존재냐" # "난관에 얽매어 있기보다, 통제 가능한 것들에 힘을 쏟자"
아르바이트 # 리스크 학회 # 전산부장
VBA → 파이썬

7.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술하시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겪었던 경제적 난관을 적극적 삶의 자세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신입생 필독서였던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읽고 "난관에 얽매어 있기보다, 통제 가능한 것들에 힘을 쏟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새벽 청소 시간에는 머릿속으로 전공을 복습하며 틈을 움직였습니다.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자, 매장 관리와 정객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업에 있어 위기관리가 중요함을 느낀 저는 고학년 중심의 리스크 학회에 지원했습니다. 전산부장으로서 VBA 중심의 커리큘럼을 파이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열정을 다하는 자세로 학회 총평가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학부에서도 성적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관을 겪으며 버티고 힘을 쏟는 법을 걸렀습니다. 고난 경험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 더 공감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입학 후 겪을 난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내공이 될 것입니다.

Q1-1. VBA → 파이썬, 저학년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이를 주도적으로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해본 이유는?

VBA → 파이썬, 저 혼자 커리큘럼 개편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산부장으로서 이를 주도하긴 하였으나, 학회원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었다면 개편이 어려웠을 것
파이썬 기본에 대해 배우고, <파이썬과 금융공학> 책을 혼자 독파하며 어려웠던 통계 지식 등은 많은 학회원들이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 기수 전산부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여 기존 VBA 중심의 커리큘럼을 더 잘 이해하여 바꾸고자 하였다.

Q1-2. VBA → 파이썬 간 학회원들의 반발은 없었는가?

반대라기 보다는 처음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
따라서, 커리큘럼을 보다 실습형으로 바꾸었으며, 자주 나오는 예제 코드의 사례를 취합하여 강의 세션 때 활용했다.
체험형 / 실습형 커리큘럼에 학회원들 전원은 동의하였으며, 이후 리크루팅 경쟁률이 2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Q2.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 설명해달라

살의 방향과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을 때 보다 더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입학 후에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도 않고, 못하는 것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며 항상 발전하는 방향성을 갖겠습니다.

Q3. 최근 관심 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제프리 사스, 「빈곤의 종말」
빈곤의 빈곤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나라 Case 별로 다루며 논제를 던지는 책입니다.
해당 책에선 빈곤이 빈국만의 문제가 아닌, 초기 자본력 + 보조가 필요한 세계 구조적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제1장 빈곤은 어디에 있는가
제2장 경제적 번영의 확산
제3장 왜 일부 나라는 번영에 실패하는가
제4장 의학과 경제학의 유사성
제5장 볼리비아의 조인플레이션 현상
제6장 유럽으로 복귀: 폴란드의 경제개혁
제7장 정상의 회박: 러시아의 투쟁
제8장 500년 만의 따라잡기: 중국의 재도약
제9장 긴 시간에 걸친 희망의 승리: 인도
제10장 소리 없는 죽음: 아프리카의 질병
제11장 이라크 전쟁이나 빈곤의 퇴치나
제12장 빈곤 종말을 위한 현장 해결책
제13장 빈곤에서 자본 속력으로 가는 선순환
제14장 빈곤 극복을 위한 전 지구적 협정
제15장 세상을 가지 있게 만드는 계산법
제16장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그릇된 처방
제17장 초일류국가 미국의 편견
제18장 우리 시대의 도전

Q4.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가족 제외)

- (1) 작전과장님 / (2) 부장님
- (3) "넛지" 저자 리처드 탈러

※ 이승쌤's 예상질문 및 답

◎ 학사인데 리스크분석경험이 있다는게 되게 특이

Q1. 산업은행은 기업분석해서 그 걸 회수까지 해야하니까 기업의 위험분석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 **현직자 Contact 예정 (구조조정본부)**

답 : 기업의 리스크관리에서 생각보다 업체 리더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

현재 활동성 / 안정성 / 수익성 지표 등을 다각도로 종합하여 Loan Monitoring을 하고 있고,

중소, 중견 기업들에 있어서는 대표자 신용 모형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회수 가능성을 다각도로 판별함과 동시에, 만약 해당 기업이 사양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적극적 전환 등을 유도해야할 것.

Q2. 그리고 본인이 데이터 분석할때 어떤식으로 하는지?

- 현업자들은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배경 지식을 접목하여 의미를 뽑아내는 EDA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김

저는 최소한의 전처리를 한 후 EDA를 통해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먼저 보고자 함

예컨데, 파산 / 비파산을 예측하고자 할 때, 두 그룹 간 변수의 Variation이 큰 변수가 가장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만약 수집한 변수 분포에 큰 차이를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모델링까지 가지 않더라도, 설명력 / 예측력을 미리 엿볼 수 있음

최근 머신러닝 / 딥러닝은 모형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RAW data로부터 의미를 뽑아내는 게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경시대회 & 공모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다. 깊은 이해 必

Q1. 어떻게 가설세우고 대안 제시했고 그 옵션중에서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 대안으로서는 CVaR라는 형태로 완충 자본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설은 "한국 시장보다 동남아 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급락 / 급등이라는 이상 현상에 더 노출될 우려가 많다" 였고 이를 계량하고자 했습니다!

- 글로벌 역량 어필하려고 써든 거기도 해서, 동남아 3국에 대해 좀더 논리를 보강해두려고 합니다 (신산업 심사부 Contact)

◎ 프로젝트 관련 질의

Q1. R 계층모형분석과정

- 데이터의 분포를 결정하는 모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 예컨데, 자산 가격의 급락 / 급등의 빈도, 크기는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
이처럼, 모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계층적 구조에서는, 전통 계량의 분석적 (즉, 해가 존재하는 analytical) 접근 방식으로 답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모수 추정에 있어서는 직접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는 generative 방식이 계량 논문에서 자주 사용됨

Q2. 데이터 분석 툴 활용수준과 활용한 프로젝트

-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현직자가 진행하는 144시간 오프라인 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를 다짐
- 또한, 경제 수업으로는 숙달하기 어려운 R, 파이썬 학습을 위해 응용통계학과 부전공
- 교내 학회나 수업에서 데이터 관련 공모전, 프로젝트를 10번 이상 진행하며 데이터를 직접 다루어본 경험이 많다
- 일례로, 올해 초 최우수상을 받은 경시대회에서는 100만개 이상이 되는 펀드 데이터로부터 자동 군집화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함

Q3.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리스크 = 불확실성 (Unknown),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의 상한, 하한을 정해놓는 등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명료화하려는 시도.
- 리스크는 그 원인에 따라서 신용 / 시장 / 운영리스크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기후 리스크가 전방위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 * 신용 → 부도, 시장 → 환율, 시장 금리
-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은, 확률 모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Tail Risk를 포착하는 기법
- cVAR, 즉 일정 Threshold (문턱) 이하의 극단적인 변동을 평균 내어 이를 바탕으로 Buffer 설정을 하려는 시도, 인상 깊게 학습하고 있다

Q4. 기업금융전문가라고 지칭했는데 기업의 위험분석은 무엇을 보고 하는게 좋을지

- 한국산업은행은 산업별 익스포저 크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산업군의 Cycle, 그리고 얼마큼 원자재 /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지 등을 먼저 보고 Case by case를 보는 up-down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기업 위험분석은 외접, 내접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견해, 시각을 취합하고 참고하되 재무제표 해석 역량 / 산업 및 기업 분석을 하는 시각을 길러 중심을 잡아야 할 것

Q5. 다변수 워킹선택했고 포트폴리오 선별과정

- 당시 선택했던 다변수는 펀드 기본 정보 (예컨데, 규모 / 현금 흐름), 과거 성과 지표 (샤프 비율, 추적 오차 등) 외에 미래 성과를 예측할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지표들이 있었음
- 특히, 얼마나 펀드 운용자가 Active하게 운용하는지 볼 수 있는 액티브니스, 그리고 Fama-French 5 Factor Model 등은 기존 과거 지향 지표보다 예측력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선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30개 다변수 관점에서 유사한 펀드끼리 묶는 군집화 (다변수 관점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 이루어짐)
- * 군집화는 군집 내 표본끼리는 거리가 가깝고, 군집 밖 표본끼리는 거리가 멀어야 우수하다 평가 가능
- * 이 학습 과정에 신경망과 딥러닝을 도입하여, 전역 최적화를 이루어내고자 함
- 2) 3개월마다 리밸런싱하며, 우수한 미래 성과를 보였던 펀드와 비슷한 군집에 속해 있는 펀드에 투자
- 3) 미중 무역분쟁, Covid-19 등 위기 상황에서 하방 위험 헷지율, 그리고 3년 누적 수익률 기준 60%의 초과 수익률을 보여줌

◎ 기타

Q1. 30초 자기소개

'Q. 30초 자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K D B 경험으로 무장한 지원자입니다.
- * 첫째, KOO 경시대회에서 30개의 다변수로 펀드를 진단, 선별하여 지표 기반 사고를 길었습니다.
- * 둘째,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어보며 데이터 Literacy를 기른 경험이 있습니다.
- * 셋째, B사 컨설팅 인턴 생활을 하며, 소비재 / 핀테크 / 바이오 기업의 실질적 기업 지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답 : K를 "K사에서 기획조정부 인턴 근무를 하며"로 바꾸면 좋을 듯
 ex) K사 인턴을하며 수기로 작성되던 녹취록을 자동화하는 DT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답 : KDB 경험 앞에 캐릭터를 묘사하는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좋을 듯
 : KRX 경시대회를 명시해서 말함이 어떨지

Q2-1. 산업은행 인턴을 하며,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느냐

Q2-2. 인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답 : 선배님 띄워주기!! / 나이든 사람들은 일에 대한 사랑 이런것보다 단체, 소속감, 자부심 이런것들 좋아함
답 : 오글거리더라도, "산업은행의 직원분들께서 경제개발의 핵심 적인 토대를 확립하고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어온 역사를 저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런거 넣기 (우리만의 Pride)

- 국정감사 때, 실시간으로 녹취록 Full-text를 따는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매뉴얼화 하였습니다.
- 덕분에 이전 인턴들과 다르게 직접 한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추가로 할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팀원을 모두 바쁘셔서 디테일한 소통이 어려웠고 처음 보는 보고서 양식에 1일차 오전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물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 저는 과장님께서 제가 보내드린 초안을 고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며 해당 보고서에 적합한 언어 / 양식을 포착했습니다.
- 이를 오후 실시간 정리 과정에 반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처음에 미숙하더라도,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 답 :** 소통 경험으로 좋을듯, 혹은 장점으로서 "장점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고 상사님의 보고서 방식을 빠르게 캐치해서 ..."

- 국정감사 자동 녹취록 매뉴얼을 만들 때 이전에 없던 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국회 중계 플레이어는 캡처 도구나, 음성 녹음, 심지어 Python 만 실행되어 있어도 이를 감지하고 강제 종료하는 문제가 있었다
- 또한, 동영상 다운로드 역시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실시간 Speech to text를 하여야만 모니터링의 의미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음성 출력을 입력으로 전환하는 방법 / Google Cloud 비동기식 API 및 애플라이저 APP를 활용한 클로버 APP 등 다양한 TOOL 을 활용하는 법을 대안으로 고안했다
- 이처럼, 산업은행 일원으로서 문제에 직면하여도 계산된 도전을 할 수 있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Q3-1. 기본 경제지표 질문

- Curve Flattening,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 5% - 7%로 30년 이래 최대
특히 한국 국제 시장은 대만과 더불어 미국 發 금융 시장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중단기 시장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 * LINK : 산은, '눈감고 귀막고' 개인금융 확대

Q3-2. 왜 경제동향 분석과 예측이 중요한가?

- 산업은행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자본 조달 상당 부분은 산금채 1년 - 3년물의 중단기 시장에서 이루어짐
최근 1년 새에 산금채 조달 금리가 2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경제동향은 산업 전방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Q3-3. 경제환경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예측기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 기존 전통적 분석 방법론, 정형 데이터 활용에 더해 비정형 데이터 및 비선형 모델링이 도입될 수 있을 것
실제로, 머신러닝 / 딥러닝 - 선형 회귀 모델보다 예측력 높은 것으로 평가됨
비정형 데이터에 있어선, 산업은행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 내, 외부 데이터를 취합하고, 주식 데이터까지 활용 가능성을 논하는 중
이처럼, 비정형 / 비선형 모델링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Q3-4. IT, 인터넷, SNS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경제활동, 상품, 시장을 주류경제학은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Q3-5. 경제심리지수 - ESI

Q3-6. 한국은행 소비심리지수 구성항목

Q4-1. VAR 모형이란 / BSM이란 / GBM이란

VAR은 Value at risk 의 약자로 ...

Q4-2. 리스크 관리 대상 : 주식,채권, 파생상품등에 대한 이해

Q5. 인공신경망이란

Q4-3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

- 리스크에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 성장 경로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Basel III 등 국제적 기준을 지키는 한편 / 리스크의 Upper bound를 Buffer로 잡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한다
예컨데, 환율 익스포저에 대해서 일정 환위험 충격이 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금액을 최소한의 Buffer 수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

Q3-7.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점, 대안

- 각 물가 관련 정책 체계는 일정 일단이 있다
20년도 한은 국정감사에선, 저성장 / 저물가 / 저금리 기조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만을 타겟팅함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대안 정책 체계로 제시할 수 있는 물가수준목표제, 혹은 현재 미 연준에 의해서 시행중인 ATI(평균물가 목표제) 역시 한계가 있음
특히, ATI 의 경우 고용 안정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가 경로가 안정적 경로에서 이탈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비가속통화국인 한국 입장에서 보자 보수적으로 정책 체계를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

※ 이승쌤's 모의면접

Q1. 많은 기업이 있는데 WHY 산업은행?

- 인턴을 했던 컨설팅 그룹사는 대기업 위주의 전략적 결정을 보조
또한 Project 목적 자체가 한 기업의 이익만을 Targeting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자금 지원 기준과 체계를 만들고, 금융 본연의 역할인 실물 시장 선도를 이끌고 싶습니다.

Q2.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Q3. 본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갖는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A. 정묵에 능하다. 단순히 배운 내용을 지식으로 갖고 있기 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집중해보려 노력함
예컨데, K사 인턴 생활을 하며 Daily 업무인 금융 지표 보고에 파이션 자동화를 이끌고, 클라우즈 API 등을 활용하여
수기로 작성되던 국회 모니터링을 자동화 했음
이처럼 개인 역량의 발전을 바탕으로 조직 목표에 기여하는 행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A. 성격의 단점으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려다 느린 진행 속도를 보인 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고자 팀, 혹은 상사와 소통하여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함
우선적으로 일의 진행률을 올리고, 남은 시간에 Re-visit 하여 개선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어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Q4. 왜 데이터 TOOL을 학습하였는가?

- A. 책속의 지식이 현장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
저는 이 연결고리가 데이터와, 데이터 TOOL 이라 생각했음.

1학년 때부터 리스크 관리 학회에서 VBA, 파이썬을 배우는 등 선제적으로 배우려 하였음

Q5. 조직에서 희생해본 경험이 있는가?

A. 컨설팅사에서 업무를 하며, 팀원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개인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컨설팅 펌은 보안 문제로 인해 Outlook으로만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Outlook은 템플릿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었으며, 말머리 기호도 재부팅 때마다 새로 정의해주어야했다
저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 이외의 시간 예컨데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했고,
VBA 매크로와 로컬 파일 저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매뉴얼화하여 제가 속에 있던 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게까지 공유할 수 있었다

Q6. 화폐금융론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1) 주식 / 채권 등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
(2) Macro 데이터가 어떻게 예측력을 지닐 수 있는지
파이썬을 바탕으로 장단기 금리차 or Taylor Rule 등을 데이터 접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Q7. 갈등으로 끝난 경험이 있는가 / 갈등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가?

A.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당시, 한 팀원이 꼭 낙회 예측 주제를 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례가 있었음
해당 팀원은 만약 해당 주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팀을 새로 꾸리거나, 혼자서라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함
그러나 다수결 결정에 의해 이미 정해진 주제 (Washington 주 부동산 가격 예측 시각화)를 크게 바꿀 수는 없어 결국 팀원의 이탈이 발생하였음
생각해보니, 해당 팀원이 원하는 낙회 데이터를 직접 지도 파일에 입혀서 본다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해당 팀원이 흥미를 느꼈을 것 같음
이처럼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팀원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차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A. 레스토랑 서빙 알바를 하며, 인수인계서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서빙의 특성 상 손님이 몰리면, 마감조가 마감 활동을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재료 / 음료 재워넣기 등 업무를 채 마치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상황도 잦음
이 때문에, 매번 마감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 전수 체크해야하는 비효율 발생하며 마감조와 오픈조 간 갈등 발생
서로의 애로사항을 터 놓는 시간을 갖고, 인수인계서 등 합의된 소통 채널을 만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음

Q8-1. KDB Way 중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며,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A. 가장 가까운 것은 "디지털 마인드", 가장 먼 것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 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음
산업은행의 현업 부서들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IT 부서에 제안과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근무했던 조직 내에서, I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 만큼, 현업에서 더욱 DT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A. 컨설팅사에서 CEO가 IR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과정, 국내외 선도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나은 전략을 구성하는 경험을 하며 외부와의 "협력"을 맞볼 수 있었음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 기업 차원이 아닌 정책 금융의 큰 틀 안에서 내외집 협력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짐
저는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RM (Relationship Management) 경쟁 우위를 갖추기 위해 입행 후 노력을 경주하겠음

Q8-2. 만약 본인이 IT 부서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실제로 BIT 직원행원분들 상당수가 IT 부서에서 활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저의 이력서와 면접 결과를 보고 IT 부서에 배치된 데에는 인사과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
어떠한 부서에 있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능동적 업무 자세를 보여드리겠다

Q9.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A. 내부 Compliance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해당 기업은 과거 거래 정지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임
따라서, 경영진은 외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심지어 직원들에게까지 확신과 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음
핀테크 기업으로서 기회 / 위기 요인을 명료화하여, 전자는 최대화하고 후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음
첫 번째로, 핀테크의 특성 상 좋은 서비스가 하나 등장하면, 고객이 유연하게 유입 /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맞춤형 중신용 대출 등)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고객 친화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함이 중요함
두 번째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 연계와 합종 연횡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 Partnership을 모색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은행은 혁신 서비스에 대한 리서치를 지원하고, Partnership과 교류의 場 을 마련할 수 있겠다
* 한국의 Fintech Forum / EU의 바이오 유럽 등 IR과 Networking의 장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대안으로서 인정받고 있더라
이처럼, 넥스트 원 - 넥스트 라운드 - 넥스트 라이즈로 이어지는 산은의 기업 발굴 - 스케일업 플랫폼은 더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Q10. 다룰 수 있는 데이터 TOOL은 무엇인지?

A. R과 파이썬을 주로 다룰 수 있으며, SPSS / Eview / Stata 등은 프로젝트나 과목 커리큘럼에 따라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음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R, 파이썬은 두 언어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요구 업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게 필요
이를 위해 현직자가 진행하는 빅데이터 오프라인 실무교육에 144시간 참석하여 기초를 다지고, 관련 강의 및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였음

Q11. 최근 가장 역을했던 경험이 무엇인가?

A. 업무 지시 사항을 잘못 이해하여, 국정감사 당일 보고서에 많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음
당시 전 기수 인턴들에 의한 매뉴얼에 의하면, 국정 감사 녹취록은 한 자, 한 자 다 적어야하는 Full-text의 형식이었음
또한, 멘토님께 업무 관련해서 여쭈어 볼 때도 Full-text를 들리는 대로 받아 쓰면 되냐고 여쭙봄
그러나, 오전 결과물을 보여드렸을 때 요약, 정제되지 않은 녹취록은 국회나 회장님께 보고드릴 수 없다며 피드백을 받음
처음에는 억울한 감정이 있었으나 Full-text의 단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고, 보다 명료하게 여쭙보지 않은 점에 반성을 느낌
이를 보완하고자 멘토님께서 초안을 고치는 과정에서 녹취록에 적합한 용어, 양식을 포착하여 오후 모니터링에 반영하였고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음

Q12. 산업은행의 어떤 부서에서 근무해보고 싶은가?

A. 산업은행 기업 금융 부서에서 근무하며, 정책 금융의 최전선을 경험해보고 싶은
기업금융실의 의사결정, 그리고 여러 관계자와의 RM을 거치며 산업은행의 Work flow를 익히고 싶은
기업금융실에서 역량을 쌓는다면, 관련 협업 부서 (예컨데, 신산업 심사부 or 리스크 관리부 등)의 업무 분장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

★

Q13. K사 인턴 업무를 하며 무엇을 느꼈는가?

A. 첫째, 대국민, 대국회 직접 채널에서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는 산은의 역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 완결된 로직과 근거를 갖고 유기적으로 부서가 협업하는 모습은 인상 깊었다.
둘째, 인턴 행원으로서도 참 주도적으로 할 일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시장 리서치 / 국회 방문 및 서류, 물품 배부 / 국회 모니터링 등 이리 저리 뛰어 할 일이 많았고, 저 역시 조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셋째, 행원분들께서 산업은행으로 근무하시는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이야기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Control Tower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가짐과 업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인턴 생활을 하며 느낀 밑거름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저력을 보이겠습니다.

Q ①. 산업은행 인턴을 하면서 느낀 점 / 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

면 어떤 Plot이 좋을까?

- step ① : 이전 이전 노력을 했다.

ex) 산업은행 부서의 큰 나무를 보기 위해, 다양한 부서로부터 올라오는

자료를 보고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 근무하는 과장님들과 컨택

하여 산업은행 업무 flow를 포착하였다

- step ② : ~~를 배웠다

ex) 산업은행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인정 받으신 주변 팀원분들로부터

업무 자세,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 step ③ : 앞으로 ~ 하겠다

ex) 나무와 숲을 보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살려 항상 큰 그림을 그

리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2. -1. 기획조정부 인턴을 하며 느낀 점 / -2. 무엇을 했는지 / -3. 각 부서에서 KDB Way의 실천을 어떻게 목격했는지 / -4. 디지털 마인드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 -5.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한 일이 있는지?

/ -6.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 -7. 산업은행 인턴 하기 전이랄 후알 본인이 직접 느끼는 산은의 좋은 점 혹은 개선해야할 점

-1. 첫째 (부서 관점), 부서 내외로 SMART한 협업이 이루어진다. 국정감사 대비 국회 요구 자료나, 현황 취합 자료 등을 만들 때 정말 매끄럽게 협업이 이루어지는 저력을 보았습니다.

..... 둘째 (은행 관점), 산업은행의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합리적 가치와 논리가 녹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등 이슈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상충될 여지가 있는데, 강단 있고 무결한 논리로 정책 금융을 수행하는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셋째 (개인 관점)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목표 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금융 가시 지표 취합, 국정감사 녹취록 작성 등 할당된 일에 자동화 기법을 더해, 효율성 개선과 저의 역량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Q1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KDB 산업은행의 "큰 일"에 한 걸음을 보태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Another A. 기획조정부에서 대국민, 대국회 직접 채널에서 분투하는 행원 선배님들을 보며, KDB 에서 활약하는 저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다.

KDB 경험 및 인턴 생활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소명에 "한 걸음"을 보태겠다

Q15.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경경지수. 항상 마음을 정갈히 하여 본 받을 수 있어야

KDB는 금융계의 어른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위기 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함

실제로, 실시간으로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오는 와중에도, 팀원분들은 평온하게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

이처럼,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저력을 발휘하고, 길을 찾는 행원이 되겠다

Q16. DSL 학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A. 주로 컴퓨터 공학, 응용통계 등 전산 / 통계 직렬 학우들과 프로젝트 수행

예컨데, Interactive Plot을 활용한 Washington 주 집값 가격 예측 / 재무제표 크롤링 및 증권사 API 를 활용한 저평가 주식 추천 프로젝트 등 진행

또한, 예측력이 높아최근 주목 받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인 "Boosting" 기법에 대해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Session 발표 진행

* Boosting : (1) 여러 예측 모델을 이어 붙이고, (2) 학습 과정에서 Loss 를 낮추며, (3) 오해스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보완하는 모델링

Q17-1. 기업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별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예컨데, 유제품 등 소비재 기업은 Cash Flow가 중요할 수 있고, 바이오 기업은 R&D가 중요하다.

또한 신성장 기업들의 경우 비재무적 지표인 MAU, TCB 등급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Panel 로서 분석하고 이로부터 insight를 가질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Q17-2.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기업을 분석해보았나?

- 중북 -

Q17-3. 관심 있게 보는 산업군은 어디인가?

신 성장 산업군으로서 바이오 산업군을 보고 있다.

해당 부문은 상승시 환자들의 QOL (Quality of Life) 와 직결되며, 현재 스케일업 금융실에서도 약 40% 정도의 투자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 AI – 신약 개발을 접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다양한 Spectrum 의 기업들을 발굴하고 싶다.

Q17-4. 산업은행은 어떻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지 아는가?

산업은행은 전통 / 신성장 산업별로 다르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통 산업의 경우 DCF에 의한 Valuation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신성장

Q17-5. 신성장 기업과 전통적 기업 간 가치 평가는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져야하는가?

A.

Q17-6. 재무 지표 ROE vs ROA, 가장 자주 보는 재무 지표는 무엇인가?

A.

Q18.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가?

☞ : 상사를 육해선 안된다

A. 2 – 3학년때 시간 날 때마다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어르신 금식 봉사를 하였음
공적 가치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보람찬 경험이었음
3학년 때 Covid-19로 인해, 봉사 활동 방문이 제한되며 어쩔 수 없다면 봉사활동에 발을 끊음
4학년이 되었을 때, 함께 가던 친구가 도시락 방문 배달 형식으로 봉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봉사를 끊었던 점에 후회를 느끼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장애학생 대필도우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

◎ Feedback

- 단점, 명확하게 고치는게 좋을 것 같다. (Q3 반영)
 - ☞ 차라리 체크를 많이하여 업무 속도가 느렸으나,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in 업무 방식
 - ☞ 멀티태스킹 가능하다 <-> 일을 벌린다 (상충되기에 각각)

○ 입사 후 어떤 일 / 타 지원자 대비 강점 좋다

- 회생경험 : 조직 불편함 겪어서, 먼저 방법을 알아내서 Manual 공유했다. 타 팀 공유까지!
 - ☞ Outlook 경험 채택
 - ☞ 만약, 주말 / 야근 근무 경험 시 야근 수당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 억울했던 경험 : Full-text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알고 반성했다.
 - ☞ 억울했으나 반성했다
 - ☞ 소통을 잘못했던 경험 (억울했던 경험 –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 ☞ (OR)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기간을 반으로, 당황스럽고 준비하려 했던 부분을 다하지 못했다 (자료의 양과 질)

- 중요한 직업윤리 관철인데, 기업과 일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공평 / 돈을 돈처럼 보지 않아야 한다 / 책임감 등을 이야기함이 좋겠다.
 - * 이상적 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살려볼 것. K사 인턴 시 타의 모범이 되어 청렴하려 했다.
 - * 실수에 대해서 직접 Cover하려고 하는 것!

○ 마지막 할 일 : 공적 가치 (K사 근무하면서..) → Term 짧게, 2 – 3문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대표함이 어렵다! 잘할 자신이 있다! ... 평가를 받았기에 잘했다)

○ SPSS 간단하게 짧게

○ 수업 외적인 부분, 예컨대 학교 생활의 다른 부분까지

○ 어떻게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었지만 입사 후에 관계를 구축하고 Case를 형성하면서 Case별로 Relationship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연결)

- 갈등 경험 : 서빙 아르바이트, 마감조 – 손님 많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음.
 - * 직무 순환을 해보아서, 서로 고충을 이해해본다
 - * 인수인계를 잘 넘겨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
 - * 팀별 갈등 (개인별 갈등) – 서로,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들 모르기에 불만이 많았다. 인수인계서 작성 제한하여, 명료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갈등 해결 및 업무 완성도 ↑)

- 갈등으로 끝났던 경험 :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나, 나갔던 친구? In 동아리
 - 그때는 다수의 의견 중요하다 생각했으나 그때 조금이라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반영하면 좋지 않았을까.
 - 따라서, 이 친구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후회 有
 - 인생은 Action이니까, 반영해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 * 아예 잘잘못이 명확한

★ **최종 Ver**
 완결된 로직과 근거를 갖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산업은행의 SMART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 쉽지않은 점도 느꼈습니다.
 산업은행은 행정부 및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입법부로부터 1) 국정감사 2) 예결위 3) 산은법 개정 등 수단으로 견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6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정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책 금융 수행을 위해 분투하시는 행원분들의 업무자세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직적 심의 중량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산은법이 시장 효율성과 고유 기능을 해치도록 개정된다면 조직 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컨데, 양이원영 의원은 구조조정 활동에 "고용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이는, 공정한 구조조정과 자유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 有
 * 필요하지 않은 산은법 개정은 방지될 필요가 있다.

★ Q1-1. 산업은행의 목적은?
 : 산업의 개발, 육성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개발 /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이 산은법 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Q2. 대외팀 인턴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주요 업무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녹취록 정리 및 보고서 초안 작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녹취록은 실시간으로 국회 현장 및 현업 부서에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산업은행 관련 질의에 대해 대응 자료 및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선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던 녹취록을 자동화하는 체계를 매뉴얼화하였습니다.
 구글 API 및 네이버 클로버 노트 등을 활용하여 85% - 90% 정확도로 Full-text를 만들 수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원별 정리 녹취록은 이후 후속 조치에도 활용되어, 국정감사 보조 업무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Q3. 국정 감사에는 어떤 현안이 있었나?
 - 현안 자료 참고 예정-

Q4. 현재 부서 이슈는?
 현재 국회의 3대 견제 수단 중 하나인 예결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은 빚재로 1500억, 뉴딜펀드 6400억에 있어 21대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중 뉴딜펀드는 400억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예결 소위 이슈에 대해서 Follow-up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갈무리 역할을 하고 있다.

Q5. Why 산업은행? (KRX / BCG 아닌)
 기업,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 up + 직접 新 성장 동력 기업을 발굴하고 싶다!
 * 이전 답변에 +

◎ 부서 관련

Q1. 가고 싶은 부서는?
 첫째, 기업금융실에서 근무하며 정책금융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업금융 부서는 다양한 외부 / 내부와 협력하며 RM 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부서에서, 다양한 계열사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여 산업은행의 우량 자산 축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후로는 지점에서 근무하며, 산업은행만의 정책금융 역할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현재, 지점에선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다양한 중소, 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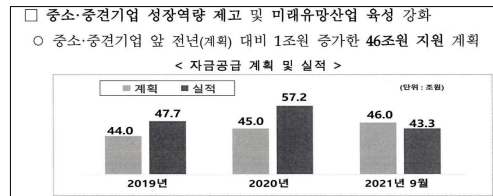
산업 은행의 중소, 지역 접점 채널에서 난관에 빠진 기업의 재기, 도약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 권리 관계 / 담보는 확실히 하여 은행의 안정적 자산 운용에도 지원하겠다.

◎ 숫자 관련

★ # 혁신 [5]	1. 업무 현황						
	○ 산은 출자 선도사업을 통한 디지털·그린 뉴딜 지원 - 녹색 생태계 지원을 위한 '그린 임팩트펀드'(525억원) 조성了 ('21.5월), 물류혁신을 위한 '스마트 물류펀드'(3,500억원) 조성 추진	○ 소·부·장 펀드* 등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 참여 지속 * 1차년도('20년) 0.8조원 규모로 조성了 및 0.5조원 투자집행('21.9월말 기준), 2차년도('21년)는 0.5조원 목표로 조성 추진 중					
	- [2] 그린 임팩트 펀드 (525억 ₩), 스마트 물류펀드 (3,500억 ₩) ○ 국내 상위 7개 VC와의 거액 공동투자협의체, 「Mega-7 Club」 운영을 통해 국내 자본에 의한 유니콘 발굴 및 육성 지원 ※ '21.9월말 기준 와디즈 등 17개社, 1,689억원 지원	- [1] 소부장 펀드 (0.5 - 0.8조 ₩) □ 미래유망 신산업,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전년(계획) 대비 3조원 증가한 20조원 지원 계획(9월말 20조원 지원) (단위 : 조원) <table border="1"> <tr> <td>'19년 계획(실적)</td><td>'20년 계획(실적)</td><td>'21년 계획 (9월 실적)</td></tr> <tr> <td>11.5 (10.5)</td><td>17.0 (16.5)</td><td>20.0 (20.0)</td></tr> </table>	'19년 계획(실적)	'20년 계획(실적)	'21년 계획 (9월 실적)	11.5 (10.5)	17.0 (16.5)
'19년 계획(실적)	'20년 계획(실적)	'21년 계획 (9월 실적)					
11.5 (10.5)	17.0 (16.5)	20.0 (20.0)					

- [1] VC와의 협업 (1689억 ₩) 「Mega-7 Club」

상생
[3]



- [1] 중소·중견기업 지원 (46조 ₩)

14.5 (15.9) | 17.0 (21.6) | 20.0 (20.0)

- [1] 신산업 혁신 부문 지원 (20조₩, 21년)

□ 지역 균형발전, 동반성장 등 사회적금융 지원 확대

○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지역특화 산업 발굴, 지역산업활력펀드* 투자 활성화 및 지역균형펀드** 조성

* 지역 소재 기술사업화 추진 중소벤처기업 지원 (2011월 200억원 조성, '21.9월말 기준 41억원 투자)

** 지역 소재 뉴딜 관련기업 투자 등 (총 500억원, '21년 중 결성 추진)

○ 일자리창출*, 대·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자금(1.5조원) 운영 및 6,927억원 지원('21.9월말)

** 동반성장펀드(1.1조원) 운영 및 협력사와 5,111억원 지원('21.9월말)

- [2] 동반성장펀드(1.1조 ₩), 지역 소재 뉴딜 관련기업 투자 (500억 ₩ 예정)

글로벌
[6]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활용한 기업의 해외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지원

* 협의체 발족 후 총 10건 US\$30.5억 지원을 ('21.9월말)

- [1] 해외 M&A 지원 10건 (30.5억 \$)

□ 다양한 금융방식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구 분	주요 사항	실적 (9월말, 참정)
Cross-border 금융	인수금융, 펀드 대출 등 운용상품 다변화 및 국내-국외 간 협업 강화	US\$3.2억 (추전기준)
PF	신사업 적극 발굴 및 글로벌 인프라펀드 LP 출자 등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US\$15.5억 (추전기준)
선박·항공기 금융	대규모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및 우량 항공사 앞 신규 항공기 금융 지원 기회 발굴	US\$12.1억 (추전기준)
해외진출 지원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운용	0.3조원 US\$23억

- [4] Cross-border (3.2억 \$), PF (15.5억 \$), 선박 / 항공기 (12.1억 \$), 해외 진출 지원 (0.3조 ₩, 23억 \$)

포스트
코로나
[2]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후관리 강화 및 Soft Landing 지원

○ 잠재부실 기업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한계기업 관리 강화

○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기업 부실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운영

* 사업재편 시설자금(0.7조원), 경영안정화 지원자금(0.3조원), 재무안정 투자자금(0.1조원)

- [1] 사업재편 / 경영안정화 / 재무안정 등 1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대비를 위한
선제적·적극적인 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

○ 정부추진 프로그램(175조+q)의 33% (59.9조원, 기안기금 40조원 포함)
담당하여, '21.9월말 기준 11.7조원 지원

○ 신규 자금지원, 기한연장·대환, 특별온렌딩 등 산은 자체 프로그램
을 통해 '21.9월말 기준 27.8조원 지원

- [1] 특별 온렌딩, 대환, 자금지원 등 (27.8조 ₩)

바이오 부문 성장 (암 / 당뇨 / 관절염 CAGR)

[3] - 메모 추가 예정 -

암 : 9% CAGR

당뇨 : 13.5% CAGR

세포치료제 : 25% CAGR

관절염 : 5%

* 그러나, 퇴행성 질병 + 동양인 발병 비율 高

考 : 어느 정도 휴리스틱 有

◎ 추가 질의 관련 (DB 금융제안 공모전 / 예금보험공사 공모전 / 한국거래소 논문 경시대회)

○ 최근 산업은행의 동남아 사업을 알고 있는가? / 해당 사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TIFA 종합 금융사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품 했던 논문과 다양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품 논문 역시, 이러한 선호도 및 교환학생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Risky한 지역을 베트남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역시 시장 리스크 관점에서 한국보다 더 급락 /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 Buffer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산업은행의 IFRS 17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미 IFRS 9 입장에서 은행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IFRS 17이 크게 건전성 이슈를 낳는 부문은 보험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KRX 경시대회 관련 설명

USER 입장에서 접근해라

해당 경시대회의 목적은 투자자의 위험 성향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어떤 펀드들에 얼마큼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 1) 좋은 펀드들을 선별 2)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2가지 체계가 필요했다.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부터 가공, 추출한 30개의 다변수를 군집화에 활용했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 비중을 최적화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안정적 현금흐름"의 의미를 갖는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실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데이터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경험을 발판삼아 산업은행이 디지털 BANK 도약에 힘을 보태고 싶다.

★

(보완)

Q11-2. 달려님 군집화란? 사용했던 주된 모델링 방법은 무엇인가?

논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첫 번째는 좋은 펀드 군집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군집 내 펀드 투자 비중을 정함이다.
첫째로, 본 논문은 30개의 다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좋은 펀드"라는 정보를 잘 요약 / 축소하는 군집 기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SOM (자기 조직화 지도) 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신경망을 활용하여 군집 간 거리는 최대화하고, 군집 내 표현 거리는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군집 내 투자 비중을 전역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GA (유전자 알고리즘)를 활용했다.
이때 최적화 목적 함수로 샤프 비율 뿐만 아닌, 자산의 공동 움직임 / 하방 위험을 잘 표상하는 CLPM을 설정하여 효과를 보고자 했다.
* GA는 최적화 과정에 돌연변이를 끼워넣음으로써 극소 최적화를 피하는 기법이다.

○ 해당 경시대회 업무를 어떻게 산업은행에 접목할 수 있을지?

산업은행은 현재 은행 내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금융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을
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바로 구하기 어려운 Data를 여러 Source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End-User 관점에서
가공했던 경험은 이러한 기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 분석을 할 때도 단순히 활용 가능한 데이터 뿐만이 아닌, 시장과 기업을 읽기 위한
선제적 분석 자체를 건지하겠다.
* 산업은행은 현재 산업의 Supply Chain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내포하는 등 산업에 대한
시각 함양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더해, 항상 데이터 관점의 분석 / 판단을 할 수 있도록 Literacy를 보이는 행원이
되겠다.

영역 및 평가 적격?

☐ 공모장

(1) DB 금융재안 논문 공모장, 동남아 리스크 분석 (입선)
- 내용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태국 리스크 분석
- 3월 초부터 2010년대 FDI 급증
- 동남 아시아에서 수출이 많은 동남아 3국
- 교환 학생 사업화에서 수출을 활용한 해외 학생들 접촉 (정성적 리스크 요인 분석 포함)

- 고지사항
- 실제로 동남아 3국 deep한 질문이 동아시아 편이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원칙과 분독 권장해서, 동아시아만 질문이 뭐나 있는지 여쭙어도 될까요?

(2) 애널리틱스 논문 공모장, 경영포용리스크를 활용한 보험사 리스크 분석 (선발 X)
- 내용 : 30년간 발표된 20개의 경영포용리스크를 통한 리스크 예측 및 리스크 분석
- 고지사항
- IFRS 17가 부채를 하나로 파악하여, 손실과 손익을 분할을 줄 건이라는 부분에서 파악이 있는데 이를 길게 물어볼 경우
인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IFRS 17 관점에서 은행 리스크의 관점 사항이 있을까요?

(3) 한국거래소 논문 경시대회, 달려님 군집화 기법을 활용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 (최종승선)
- 내용 : 4600개 공모펀드, 30개의 지표로 선택하는 자동 포트폴리오 구성
- 고지사항
- (1) 저는 이리얼 다변수를 바탕으로 선별 투자를 했던 경험들 (2) 다양한 부서 / 산업에서 보는 지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
(매출비율, MAU, TCB 등금 등), (3) 실제로 발굴된 산업에서 새로운 지표를 보는 시각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 등 등이
간접으로 내세우고 싶은데 어떨지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 (2) 또한, 이번 공모 부문은 개인 수준 금융 데이터였다. 최근 data를 좀 더 많이 얻어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문에서 질문이 동아시아 IT 서비스 기업에서 새로운 지표를 보는 시각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 등도
혹시, 이리얼 전략적으로 큰 데이터를 다룰 기회가 있을까요?